

이야기 2 : 예수님의 탄생

주제말씀
[미태복 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옛날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란 동네에 아름다운 처녀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마음씨 착한 목수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해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마리아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그 아가에게 주실 것이다.” 마리아가 말했어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말했어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낳을 것이라!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다.”

그때에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될 수도 있는 무서운 일이었어요. 또 결혼하기로 한 요셉에게 버림받게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히려 진심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아는 천사의 말대로 아기를 가졌어요.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마리아에게 아이가 있다는 소식은 정말 반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어요.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리아에게 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세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게 구원하실 분이시다.”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약속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을 했어요. 몇 달 뒤,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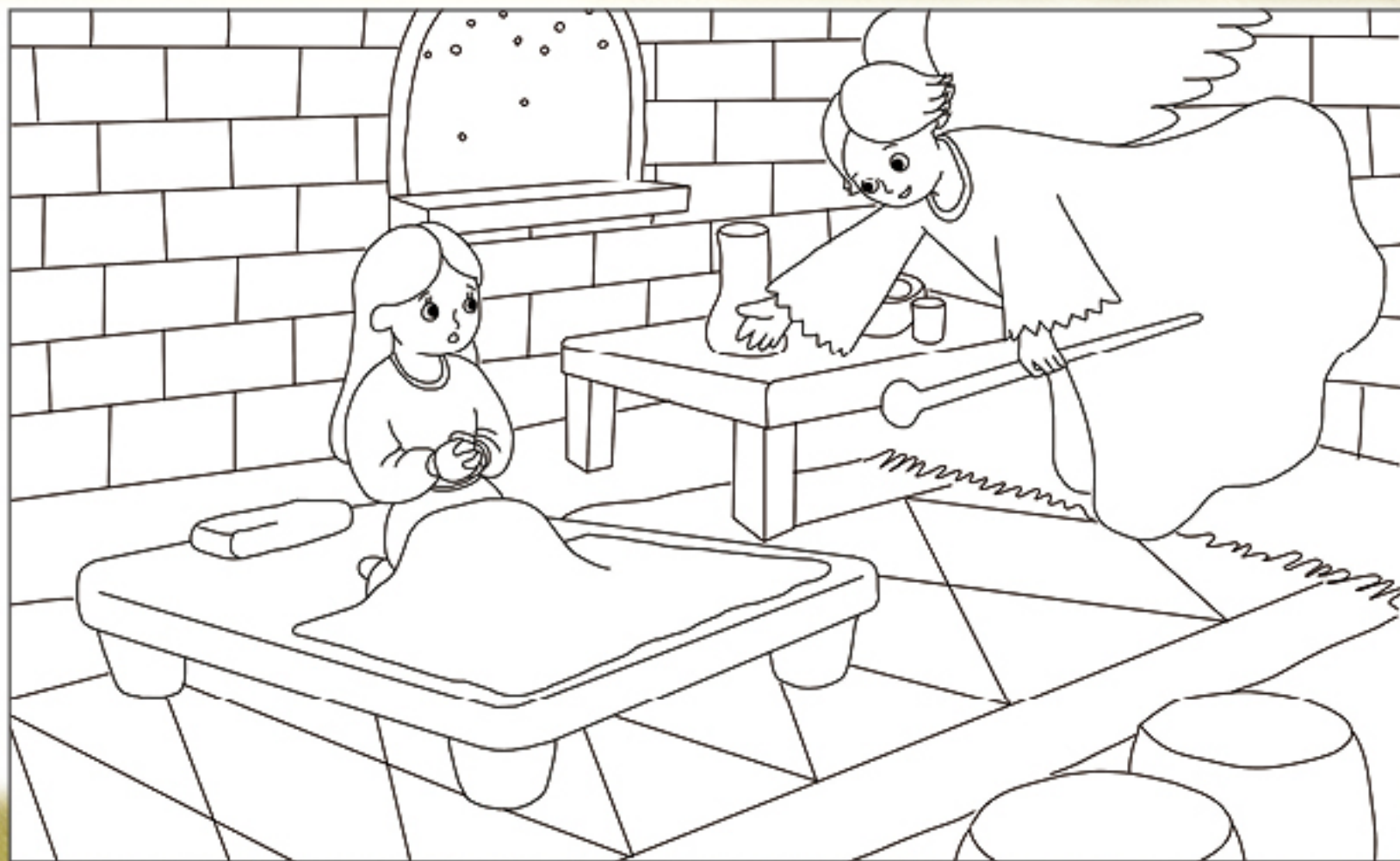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 조사를 받으라고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날이 저물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머무러 곳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 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쉬만한 곳을 찾지 못했던 두 사람은 간신히 말들이 먹고 자는 마구간으로 들어갔어요.

그 밤에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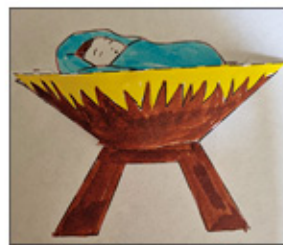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암송하세요. (마태복음 1:23)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활동 2. 아기 예수님의 구유를 완성해보세요.



완성된 이미지



1. 그림을 예쁘게 색칠한다.
2. 선을 따라 조심하 오린다.
3. 점선을 따라 접는다.
4. ● 표시에 풀칠하고 두 그림의 ● 를 연결해 붙인다.

재료 : 가위, 크레파스, 풀

